

◆ 사람에서 발생되는 위암의 확실한 원인은 아직 모...◆
 ◆ 르지만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된 역학적인 조사에 의하...◆
 ◆ 면 위암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나라는 일본, 한국등...◆
 ◆ 을 포함한 아세아, 아이슬란드, 라틴아메리카의 중앙부...◆
 ◆ 와 서부 산악지대, 동유럽등인데 이러한 지방에 사는...◆
 ◆ 민족이 일반적으로 소금에 절여서 말린 생선, 연기에...◆
 ◆ 훈제한 생선, 소금에 절인 채소, 짜고 매운 음식을 많...◆
 ◆ 이 섭취하고 비타민 C의 함유가 많은 신선한 채소...◆
 ◆ 와 과일등을 적게 먹는 공통점이 있는 식생활을 하...◆
 ◆ 고 있다. 미국에 이민하여 미국사람과 같은 식생활을...◆
 ◆ 하는 일본인 2세나 3세에서의 위암발생률은 미국사...◆
 ◆ 랍에서와 비슷하고 일본 본토에서의 발생률을 보다 현...◆
 ◆ 저하게 감소되는것을 본다. 이러한 현상은 위암의 발...◆
 ◆ 생이 식생활 습성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② 매 식사때마다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채소 특히 진한 녹색 채소, 진한 황색 채소, 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 겨자과 채소를 함께 먹는다.
 ③ 쌀, 보리, 밀같은 곡물은 정미하지 않은 것일수록 좋다.
 ④ 매 식사후에는 신선한 과일 특히 감귤류같은 비타민 C가 많은 과일을 먹도록 한다.
 ⑤ 소금에 절여서 말린 생선이나 육류, 연기에 훈제한 생선이나 육류, 장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가공된 생선이나 육류

유없이 소화불량이나 식욕감퇴 등이 4주이상 계속되면 전문 의사의 검진을 받아야 할것이며, 40대이후의 장년기 부터는 특히 위암의 가족력이 있을경우는 1년에 1회정도 상부위장촬영술 또는 위내시경검사를 받아볼도 조기발견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위암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위선암은 위점막에서 시작되어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으로 침윤되어나가고 위에 가까이 있는 제1군 입파절로 전이되고, 암이더욱 진행됨에 따라서 제2군입파절, 제3군, 제4군 입파절로 전이되어 가는것이 일반적이다. 모든 암에 대한 수술과 같이 위암에 대한 수술도 위의 절제 범위는 물론이려니와 위주위의 제1군 입파절은 물론, 제2군 및 제3군 입파절까지 철저한 입파절 과정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어느 한곳이라도 불충분한 수술이 되면 재발의중

獨米化하지 않은 콩을 섭취한 후에 절인 加工시킨 채소는 화학물질로 변화된다.

胃

癌

가운데 보관하면 아질산염으로 변화하는것이 방지된다. 질산염이나 아질산염 자체는 암을 유발시키지 않지만 아질산염이 위 또는 장안에 있는 세균의 작용에 의하여 또는 어화학반응에 의하여 니트로소화합물로 변화하는데 이러한 니트로소화합물들은 동물실험에서 위암을 일으키는 강력한 발암물질이다.

신선한 채소나 과일에 많이 있는 비타민 C는 질산염 또는 아질산염이 화학반응에 의하여

韓國人에게 가장많은 癌 질환

는 될수록 덜 먹고, 먹을때는 반드시 신선한 채소도 함께먹는다.

⑥ 고기를 구워서 먹을때는 타지않게하고 탄 부분이나 생선의 껍질(껍질에 있는 지방이 불에 타면 좋지않음)은 먹지

요한 원인이 되기때문에 위암에 대한 수술은 암수술에 전문적인 훈련이 되어있는 외과 의사가 시행하여야 한다. 실제로 제1군 입파절 과정술만 시행하였을경우 5년이상 생

가족력있을땐 年 1회 上部胃腸촬영술 實施 바람직

早期발견 手術施行時 5年 이상 長期生存率 90 %

手術時엔 철저한 淋巴節 과정술 施行을

강력한 발암물질인 니트로소화합물로 변화하는것을 차단 내지는 억제한다. 그러나 기왕에 생성된 니트로소화합물을 중화시키는 작용은 없다. 신선한 과일과 겨자과채소에 있는 인돌, 페놀, 프라본, 방향족 이소티오시아닌, 베타시토스테롤등은 발암물질들이 세포에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발암현상이 일어나는것을 억제한다. 동물실험에서 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사람에서도 암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실험을 시행한보고가 아직은 없으나 적어도 가능성이 많고, 한가지의 발암물질보다는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것으로 보고있다.

사람이 생활하는중에 음식물, 음료수, 중금속 오염등으로 인하여 많은 발암물질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동물실험 및 역학적 연구에 근거하여 암발생을 예방할수있는 길로서 다음들을 수 있다.

① 소금에 절이거나 또는 가공시킨 채소는 될수록 덜 먹는다.

② 음식을 짜고 매운게 먹으면 위점막의 위축을 가져오고 장기간 계속되면 위축성 위염이 만성으로 오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위안에 들어온 발암성 물질의 작용을 용이하게 하여주므로 짜고 매운 자극성 음식물은 피하는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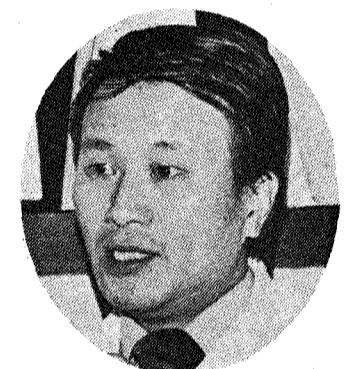
③ 음식을 짜고 매운게 먹으면 위점막의 위축을 가져오고 장기간 계속되면 위축성 위염이 만성으로 오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는 위안에 들어온 발암성 물질의 작용을 용이하게 하여주므로 짜고 매운 자극성 음식물은 피하는것이 좋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하면 5년이상의 장기생존률 즉 근치율이 90%가 넘기때문에 조기발견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별한

존율은 매우 낮다. 암이 위의 점막이나 점막하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조기위암은 암수술에 충실했을 시험하였을 경우 더이상의 치료없이도 5년이상 장기생존률이 90%가 넘기 때문에 남은 여생을 재발없이 편안히 살수있다. 암이 위의 바깥층인 장막에 까지 침윤되어 있거나 입파절에 전이가 있으면 (입파절 전이가 어느 입파군까지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인 근치율은 30%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방사선 요법, 항암제요법, 면역요법등 수술에 보조적 치료 즉 다방법 병합치료가 필요하다. 다방법 병합치료의 양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는 암전문의과 의사, 항암제치료전문의사, 방사선치료전문의사, 면역요법전문의사등의 팀이 되는 암치료팀이 있어서 환자의 전신상태 암의 병기 및 재발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토의한후에 치료방침을 세워서 단계적 치료에 차질이 없이 효율적으로 환자의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가

癌患者가 諸多의 治療 대책



閔 震 植

<延世醫大外科學교실>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술 후 정기적인 추적검진이 매우 중요한데 수술후 2년까지는 3개월마다, 2년후부터 5년까지는 6개월마다, 5년이후는 1년에 한번 정도의 검진 및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만연의 재발을 가능한 빨리 발견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효율적으로 시행할수있기 때문이다.

DL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다고 말했다.

의사들은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연어와 같은 기름기가 많은 생선을 기피하라는 말을 했었다.

그러나 이 연구진은 그런생선들이 치료효과까지 있는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번째의 연구는 생선식사가 심장병뿐만 아니라 아마도 류머티스성 관절염이나 천식과 같은 병에도 효과가 있는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류머티스性 관절염 및 천식豫防에 도效果 커

치는 가에 종점을 두고 있다.

포틀랜드의 오리건 건강과학 대학교의 의학자들은 음식에 영어를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증의 원인물질인 저밀도리포단백질(VLDL)이라고 하는 콜레스테롤의 일종인 트리글리세리드의 함량을 낮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생선 특히 대구 연어 정어리 고등어와 같은 한대성 어족들에게 어떤 다른 음식들에는 어떤 다른 음식들은 발전되지 않는 고지방과 같은 음식들이 내포하고 있고 이를 질이

하버드 대학교 의학자들이 진행중인 이 연구는 생선식사가 白血球의 화학대사를 바꿈으로써 감염症을 완화시키는것 같다고 한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교의 K·프랭크 오스틴 박사는 일반사람에게 연구결과로 밝혀진 사실들을 주장하기에는 시기상조인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생선 매일 먹으면 心臟病予防효과 있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誌, 최근 研究 결과 報告

매일 생선을 먹으면 의사특히 심장병전문의를 멀리할 수 있다.

이같은 결론은 권위있는 의학학술지인 뉴잉글랜드 저널오브 메디신誌에 최근 실린 3편의 연구논문에서 찾을수있다.

생선을 상식함으로써 얻는여러가지 이득에 관한 이야기는西洋사회에서도 헤아릴수 없을정도로 많다. 널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로는 생선이 「머리를 좋게하는 음식」이라든지 대구간기름은 만병통치약이라든지 하는것도 있다.

하지만 의학전문학술지에 발표된 3편의 연구논문중 20년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시된 한 논문에는 식사때 생선을 상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심장병발병률이 아주 낮다는것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血液응고를 弱化시켜, 콜레스테롤值 낮춰

의 심장병발병률을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생선을 계속 먹지 않는 사람보다도 쇠고기등 콜레스테롤 식품을 더 먹는데도 불구하고 발병률은 50%이상 낮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생선식사가 심장병유발을 낮춘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그린란드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하루에 약 14온스(약 4kg)의 생선을 먹는데 심장병발병률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4kg의 생

어도 관상동맥심장병의 예방에 다소 효과가 있다고 암시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런 효과가 어떻게 하여 일어나는지에 관해 복잡한 생화학적 원인의 규명에 착수해있다.

생선 특히 대구 연어 정어리 고등어와 같은 한대성 어족들에게 어떤 다른 음식들은 발전되지 않는 고지방과 같은 음식들이 내포하고 있고 이를 질이